

**GS샵,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 씨트립과 MOU 체결**

**요우커 대상 맞춤형 쇼핑 서비스 제공**

GS샵(대표 허태수, www.gsshop.com)이 중국 관광객(요우커) 공략에 나선다.

GS샵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업체인 씨트립(CTrip·携程, www.ctrip.com)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대상 쇼핑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O일 밝혔다.

씨트립은 2003년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여행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현재 2억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항공권 및 호텔 예약, 패키지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 종합적인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한국을 찾은 600여만 명의 요우커 중 25%인 150여만 명이 씨트립을 통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2배 규모인 300여만 명이 씨트랩을 통해 한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사는 씨트랩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고객DB를 GS샵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 요우커 개인 별 여행일정 및 쇼핑취향에 맞는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쇼핑 위주의 단체 여행에서 체험을 중시하는 개별 여행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 일정, 방문지, 쇼핑 성향 등을 분석, 개인화된 여행 컨텐츠와 쇼핑 컨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신규 모바일 쇼핑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요우커 인근의 상점 및 식당 할인쿠폰 제공 ▲테마파크 입장권, 외식 등 모바일 할인티켓 판매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GS샵 히트상품 및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한국상품 판매 및 숙소 배송 서비스 등이 주요 쇼핑 컨텐츠다.

한편, 국내 홈쇼핑 1위 사업자와 중국 온라인 여행 1위 사업자인 양사의 이번 제휴는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GS샵은 올해 700여만 명으로 예상되는 요우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든든한 협력자를 얻게 됐다. 내수 불황의 장기화와 소비심리 저하, 해외직구 확대, 디지털/모바일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그에 따른 고객의 변화 등 홈쇼핑 산업이 맞고 있는 변곡점에서 ‘모바일 쇼핑’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요우커와 중국시장’라는 또 하나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씨트립 역시 요우커들이 실제 여행 중 필요로 하는 각종 할인 티켓과 맛집, 양질의 쇼핑 서비스를 통해 중국 내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씨트립의 OOO 제니퍼 란은 “씨트립이 지향하는 여행지 내 컨텐츠강화를 통해, 획기적인 고객경험을 확보하고, GS홈쇼핑의 우수한 상품, 대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씨트립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 …”

GS샵 뉴비즈사업부 김준식 상무는 “GS샵의 우수한 상품 중, 중국인에게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하여, 보다 편하고, 가치 있는 여행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고 밝혔다. //